

국내 학회의 오픈엑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제안

A Proposal for the Acceptance and Processes of Open Access in Korean Societies

김규환 (Gyuhwan Kim)*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학회가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오픈엑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BOAI 오픈엑세스 선언 이후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을 조사하여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엑세스 수용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SHERPA/RoMEO, DOAJ 그리고 PMC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엑세스 수용과 추진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학회가 오픈엑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학회는 오픈엑세스 추진전략간에 오픈엑세스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적합한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지 유통방식은 국내 학회의 대내외적 출판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출판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성문화하고 저자와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HERPA/RoMEO, DOAJ 그리고 PMC 등에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guide for the acceptance and processes of open access in Korean Societies. Firstly, this study developed journal publishers' open access model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and strategies of open access.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journal publishers' open access strategies and the adoption degrees through SHERPA/RoMEO, DOAJ and PMC databases. Final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guide to help Korean societies make journals more open or less open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as real. Korean societies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o derive open access.

키워드: 오픈엑세스, BOAI 선언, 셀프 아카이빙, 오픈엑세스 학술지, gratis 오픈엑세스, libre 오픈엑세스
open access, BOAI statement, self archiving, open access journals, gratis open access, libre open access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hwan@jj.ac.kr)

■ 논문접수일자: 2014년 8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4년 9월 5일
■ 정보관리학회지, 31(3), 111-131, 2014.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3.111]

1. 서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를 통해 동료 연구자에게 알리고 지지나 반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어떤 대가도 없이 기꺼이 투고해 왔다. 그런데 연구자간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있던 학술지가 상업 출판사에 의해 독·과점되고 온라인 출판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학술지의 구독료가 상승하였다. 학술지 구독료의 상승으로 인해 도서관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학술지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국 학술지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가별, 출판사별, 기관별로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안적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형들이 제안되었다(최재황, 조현양, 2005).

오픈엑세스는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선언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오픈엑세스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접근모델로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비용지불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학술지 논문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엑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엑세스 학술지라는 두 가지 보완적 전략도 제안되었다. BOAI 선언 이후 많은 학술지 출판사가 오픈엑세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2014년 7월 기준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¹⁾에 등록된 1,592개의 학술지 출판사 중에서 73%가 저자에게 학술지 논문의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고 있고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이하 DOAJ)²⁾ 데이터베이스에는 9,912종의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등재되어 있다. 또한 이들 학술지 출판사는 각자의 학술지 출판방식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국내 학술지의 구독료 상승에 의한 학술지 위기와 같은 경제적 이유에서 오픈엑세스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기존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픈엑세스 논의가 가지는 기술적, 사회적 의미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학술지를 온라인으로 출판·유통하는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학술지 논문을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하고 웹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판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기술적 측면 이외에 오픈엑세스를 윤리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는데 특히 정부로부터 공공기금을 받고 수행한 학술지 논문이 유료로 배포될 경우 납세자인 국민은 이중의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는 비판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경희, 2011, p. 374). 그러다 보니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는 국가나 단체 차원에서 오픈엑세스 정책을 수립한 후 이를 개별 학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민간차원에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 중심이 되어 의생명학 분야의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출

1) SHERPA/RoMEO.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sherpa.ac.uk/romeo>

2)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doaj.org/>

판을 장려하고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KoreaMed Synapse³⁾의 통합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오픈엑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이하 OAK)사업을 통해 국내 학술지를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거나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OAK 사업에 의해 출판된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OAK-Central⁴⁾의 통합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존에 오랫동안 발행해 오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인 『정보관리연구』를 2013년도에 새롭게 오픈엑세스 학술지인 JISTaP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⁵⁾으로 전환하여 출판하였다.

국내 학회는 학술지 출판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⁶⁾로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오픈엑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국내 학회가 선택하는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도 달라야 한다. 국내 학회의 학술지 유통방식은 원문서비스 채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정경희, 2011). 첫째는 이용자가 상용DB에 비용을 지불하고 학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이다. 둘째는 학회가 홈페이지나 무료DB에 원문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이다. 셋째

는 상용DB에서 원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홈페이지와 무료DB에서도 공개하여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학술지 유통방식이다. 이제는 국내 학회가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적합한 오픈엑세스의 유형과 추진전략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회가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오픈엑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BOAI 선언에서 최초로 정의된 오픈엑세스의 개념과 추진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픈엑세스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Suber와 Harnard(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BOAI 선언 이후 학술지 출판사가 수용하고 있는 오픈엑세스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엑세스 수용모형을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엑세스의 수용과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추진현황 조사는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 DOAJ 데이터베이스, PubMed Central(이하 PMC) 데이터베이스⁷⁾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넷째,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회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른 오픈엑세스의 수용과 추진방식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학회

3) KoreaMed Synapse.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synapse.koreamed.org>

4) OAK-Central.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central.oak.go.kr>

5) JISTaP.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jistap.org/>

6) 홍재현(2008) 연구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906종에서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이 있는 학술지가 306종이고, 이 중에서 학회가 저작권 귀속주체인 학술지가 261종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7) PubMed Central.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ncbi.nlm.nih.gov/pmc/>

가 새로운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형인 오픈엑세스를 수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술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BOAI 선언에서 오픈엑세스의 개념과 추진전략

2.1 오픈엑세스의 개념

BOAI 선언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비용지불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오픈엑세스라고 정의하였다. 동료심사제 학술지 논문을 오픈엑세스의 대상으로 하며 오픈엑세스의 요건으로 접근비용장벽(price barriers)의 제거와 허가장벽(permission barriers)의 제거가 제시되었다 (Suber, 2003). 여기서 접근비용장벽의 제거는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출판처리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장벽의 제거는 이용자가 공정사용(fair use)을 넘어서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작권자가 재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나 선언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학술지 논문이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제공될 때 가능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학술지 논문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입수가 가능하고 동시에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하고, 배포하고, 프린트하고, 검색하고, 해당 원문으로 링크를 달고, 색인을 위해서 크롤링하고, 데이터로써 소프트웨어에 보내고, 합법적인 목적에서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이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비용적 부담 외에 어떤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도 없으며 저작권이 유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저자의 연구내용이 원본의 상태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당하게 인정받고 인용되어질 권리를 지키고자 할 때 뿐이다. 한편 이용자의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생산자⁸⁾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을 모두 제거해야 하며 특히 BOAI 선언에서는 허가장벽을 최대한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 오픈엑세스의 추진전략

BOAI 선언은 이용자에게 학술지 논문에 대한 오픈엑세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보완적 오픈엑세스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이며 다른 하나는 오픈엑세스 학술지(open-access journals)이다.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가 학술지 논문을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기탁하면 이용자가 접근비용장벽 없이 해당 학술지 논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OAI 선언에서 오픈엑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을 제안한 이유는 학술지의 대부분을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출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8) 여기서 생산자는 저자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을 생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임.

보인다. 구독기반 학술지 유통플랫폼에서는 도서관이나 이용자가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학술지 논문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접근비용장벽이 존재하는 유통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이용자에게 오픈엑세스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구독기반 학술지 유통플랫폼을 벗어나 다른 공개 유통플랫폼에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저장하고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 논문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개 유통플랫폼으로 공개 전자 아카이브라는 저장소가 필요하게 된다. 공개 전자 아카이브는 OAI(Open Archives Initiative)가 제공하는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표준을 준수한다. 이를 통해 검색엔진 등이 여러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저장된 저자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서지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가 각각의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일일이 접근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학술지 논문의 서지메타데이터와 원문 위치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전자 아카이브로는 기관 리포지터리와 주제 리포지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저자가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에 투고한 학술지 논문을 공개 유통플랫폼에 셀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인 학술지 출판사가 이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 현재 많은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정책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하고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도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학술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학술지 출판사는 이용자

를 위해서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많은 학술지 출판사가 BOAI 선언의 정의에 충실한 다수의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출판하였고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지를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기도 하였다(정경희, 2011, p. 376). BioMed Central(이하 BMC)와 Public Library of Science(이하 PLOS)가 대표적인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사이다.

3.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엑세스 수용모형

3.1 오픈엑세스의 유형과 명칭

BOAI 선언 이후 오픈엑세스를 수용하기 위한 학술지 출판사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BOAI 선언의 오픈엑세스 정의가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오픈엑세스를 수용한 학술지 출판사가 실제 오픈엑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접근비용장벽만 제거한 상태에서 서비스하는 유형과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서비스하는 유형이 혼재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오픈엑세스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마땅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오픈엑세스라는 용어가 두 가지 오픈엑세스 유형을 모두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Suber와 Harnad(2008)는 두 가지 오픈엑세스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하위 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접근비용장벽만 제거된 상태의 오픈엑세스를 'weak 오픈엑세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이 모두가 제거된

상태의 오픈엑세스를 'strong 오픈엑세스'라는 용어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weak 오픈엑세스'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서 보다 중립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Suber(2008)는 'weak 오픈엑세스'라는 용어 대신에 'gratis 오픈엑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strong 오픈엑세스'라는 용어 대신에 'libre 오픈엑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⁹⁾

요컨대, BOAI 선언에 제시된 오픈엑세스와 달리 현실 속에서 사용되는 '오픈엑세스'라는 단일 용어는 'gratis 오픈엑세스'와 'libre 오픈엑세스'의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접근비용장벽만 제거된 상태의 오픈엑세스는 'gratis 오픈엑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이 모두 제거된 상태의 오픈엑세스는 'libre 오픈엑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픈엑세스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2 오픈엑세스의 유형과 추진전략의 관계

오픈엑세스 추진전략 중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엑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다. 특히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셀프 아카이빙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구독기반 학술지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공개된 유통플랫폼에서 접근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의 73%가 저자에게 학술지 논문의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고 있다. 주로 학술지 논문의 심사전 논문(preprint)이나 심사후 논문(postprint), 또는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 모두에 대해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고 있다.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gratis 오픈엑세스 유형과 libre 오픈엑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이다. 먼저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접근비용 장벽만 제거된 학술지로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엑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다.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gratis 오픈엑세스 유형의 추진전략인 셀프 아카이빙 정책과 다른 점은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을 주로 제공한다면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출판후 논문(publisher version)을 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이용자가 학술지 논문에 무료접근시점, 즉 엠바고 기간에 따라서 세분된다.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명과학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 등재 데이터베이스인 PMC의 경우 학술지 출판사를 포함한 저작권자에게 학술지 출판한 시점에서 일정한 엠바고 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학술지에 대한 엠바고를 공식화하고 있다. PMC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의 무료접근시점을 보면 대략적으로 출판즉시,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4개월 이내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9) 'gratis'와 'libre'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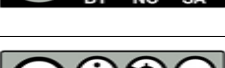
Gratis_versus_libre.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en.wikipedia.org/wiki/Gratis_versus_libre

다음으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접근비용 장벽과 허가장벽이 모두 제거된 상태의 학술지로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사가 libre 오픈엑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다. 최근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허가장벽의 제거를 위해서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CC 라이선스를 채택할 경우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표 1>에 제시된 CC 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특히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CC 라이선스 유형 중에서 CC-BY 라이선스(저작자 표시)유형을 채택할 경우 BOAI 선언에서 정의된 오픈엑세스의 개념을 가장 가깝게 실현하는 오픈엑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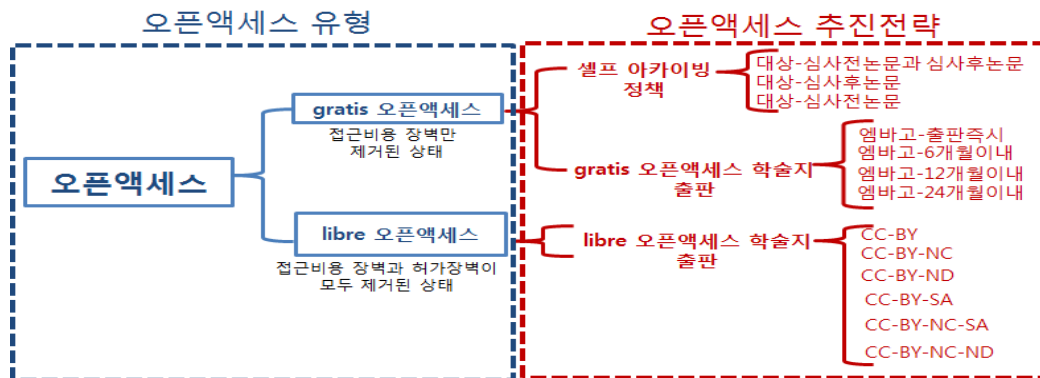
스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CC-BY 라이선스(저작자 표시) 유형을 채택하면 이용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한다는 이용조건을 지키는 한, 저작권재산권자의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학술지 논문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포맷 변경도 포함) 등의 공유가 가능하고, 리믹스, 변형,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변경이 가능하고,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용자는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이용조건하에 학술지 논문을 가장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

한편, BOAI 선언 이후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출판환경을 보면 하이브리드 및 선택적 오픈엑세스 학술지, 지연형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같이

<표 1> CC 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과 이용조건, 문자표기 방식¹⁰⁾

라이선스 유형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함	CC-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CC-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함	CC-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CC-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CC-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함	CC-BY-NC-ND

10) Creative Commons Korea.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cckorea.org/xs/?mid=ccl>



〈그림 1〉 학술지 출판사의 선택 가능한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의 관계

변형된 오픈액세스 학술지도 상당수 출현하였다 (차미경 외, 2007, p. 66). 그러나 현실 속에 출현한 변형된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 어떤 것까지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에는 출판즉시 무료접근이 가능한 경우와 함께 일정기간 엠바고를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고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에는 CC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학술지 출판사가 오픈액세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의 학술지 출판방식에 따라 오픈액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을 선택할 경우 오픈액세스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 유형을 선택할 경우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할 수 있고 libre 오픈액세스 유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

할 수 있다. 둘째, 학술지 출판사는 선택한 오픈액세스 추진전략별로 가장 적합한 세부 추진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선택할 경우 저자에게 허락하는 아카이빙 대상 논문 유형을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gratis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할 경우에는 엠바고 유형을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libre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할 경우에는 CC 라이선스 유형을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액세스 수용 및 추진 현황

4.1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과 정책내용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다른 공개 유통플랫폼에 셀프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인 학술지 출판사가 이를 허락한다는 명시적인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실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과 정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4년 7월 현재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는 1,592개의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과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때 4가지 정책으로 분류되고 각각에 대해 '그린(green), 블루(blue), 옐로우(yellow), 화이트(white)' 색상이 부여된다(〈그림 2〉 참조). 그린 색상은 저자가 학술지 논문의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을 둘 다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블루 색상은 저자가 심사후 논문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옐로우 색상은 저자가 심사전 논문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정책이다. 화이트 색상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도 아카이빙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정책이다.

첫째, 〈그림 2〉를 통해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학술지 출판사 중에서 73%가 어떤 형태로든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그린 색상이 33%(524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블루 색상이 33%(522개), 옐로우 색상이 7%(111개) 순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이트 색상으로 표현되는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가진 학술지 출판사의 비율이 27%(435개)라는 것이다. 이들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의 저작권 정책상에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내용을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식

RoMEO colour	Archiving policy	Publishers	%
green	Can archive pre-print and post-print	524	33
blue	Can archive post-print (ie final draft post-refereeing)	522	33
yellow	Can archive pre-print (ie pre-refereeing)	111	7
white	Archiving not formally supported	435	27

〈그림 2〉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과 정책내용(SHERPA/RoMEO)¹¹⁾

11) RoMEO Statistics.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sherpa.ac.uk/romeo/statistics.php?la=en&fIDnum=1&mode=simple>

RoMEO에서는 RoMEO Statistics 외에도 'Publishers Allowing use of their PDFs in Repositories' 항목에서 출판후 논문(publisher version)에 대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학술지 출판사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출판후 논문에 대해서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는 학술지 출판사 수(601개), 엠바고가 있는 학술지 출판사 수(91개), 출판사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학술지 출판사 수(22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학술지 출판사 수(5개)를 제공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oMEO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통계표 〈그림 2〉를 중심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 비율과 정책내용을 설명함.

적이고 명시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로 하여금 해당 학술지 출판사에 논문을 투고할 때 셀프 아카이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투고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내용을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때 셀프 아카이빙 가능한 자료의 버전뿐만 아니라 아카이빙이 가능한 장소, 그리고 아카이빙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카이빙 가능한 자료의 버전은 크게 '심사전 논문 가능', '심사후 논문 가능',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 모두 가능'으로 구분된다. 아카이빙이 가능한 장소는 '공공 서버 가능', '비영리 서버 가능', '저자나 소속기관의 웹사이트 가능', '저자나 기관 리포지터리 가능',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가능'으로 구분된다. 아카이빙 조건은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과 출판사 출처정보를 밝힐 것', '출판버전을 알리고 링크를 연결할 것', '출판버전은 사용할 수 없음', '엠

바고가 있음'으로 구분된다. 이런 명확한 셀프 아카이빙 정책으로 인해 저자는 학술지 논문의 어떤 버전을, 어떤 장소에, 어떤 조건하에서 셀프 아카이빙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지정된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기탁할 수 있다.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예시된 학술지 출판사의 경우는 그린 색상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셀프 아카이빙할 수 있는 논문의 버전은 심사전 논문과 심사후 논문이다. 아카이빙이 가능한 장소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자의 웹사이트나 리포지터리이다. 아카이빙 조건은 출판사의 저작권정책과 출판사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며 OpenDepot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할 자격을 갖춘 영국의 저자는 OpenDepot 리포지터리에 기탁할 수 있다.

Journal: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ISSN: 1945-7731, ESSN: 1945-774X)	
RoMEO: This is a RoMEO green journal	
Author's Pre-print:	✓ author can archive pre-print (ie pre-refereeing)
Author's Post-print:	✓ author can archive post-print (ie final draft post-refereeing)
Publisher's Version/PDF:	— archiving status unknown
General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n non-commercial author's website or repositories Publisher copyright and source must be acknowledged Eligible UK authors may deposit in OpenDepot
Mandated OA:	Compliance data is available for 5 funders
Copyright:	Policy
Updated:	18-Mar-2013 - Suggest an update for this record
Link to this page:	http://www.sherpa.ac.uk/romeo/issn/1945-7731/

⇒ 아카이빙 자료 버전

⇒ 아카이빙 장소/조건

<그림 3>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사례(SHERPA/RoMEO)

4.2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추진 현황

4.2.1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비율

DOAJ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gratis 오픈 액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작업은 DOAJ 데이터베이스의 고급검색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 라이선스(Journal License) 분류메뉴를 활용하였다.¹²⁾ 학술지 라이선스 메뉴에서 CC 라이선스 유형과 None 유형(CC 라이선스가 없는 유형)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구분은 CC 라이선스 유형의(유사한 라이선스 문구) 부착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다. CC 라이선스 유형을 미부착된 학술지는 gratis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분류하였고 CC 라이선스 유형이 부착된 학술지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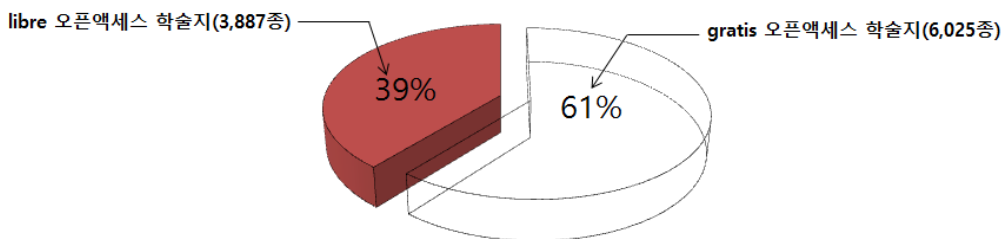
2014년 7월 기준으로 DOAJ 데이터베이스에는 9,912종의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등재되어 있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libre 오픈엑

세스 학술지는 39%(3,887종)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61%(6,025종)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gratis 오픈 액세스 학술지가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4.2.2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엠바고 기간의 유형과 비율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엠바고 유형과 비율에 대한 조사는 DOAJ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PM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gratis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대부분이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엠바고 기간 없이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학술지 논문에 대한 엠바고를 공식화하고 있는 생명과학분야 오픈 액세스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PM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PMC 데이터베이스에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2,176종의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등재되어 있었다. 조사작업은 PMC 등재 학술지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



<그림 4>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비율(DOAJ)

12) DOAJ 데이터베이스 등재 학술지들의 라이선스 유형과 통계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음.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doaj.org/search?source={%22query%22:{%22match_all%22:}}#.VB1TmPL_t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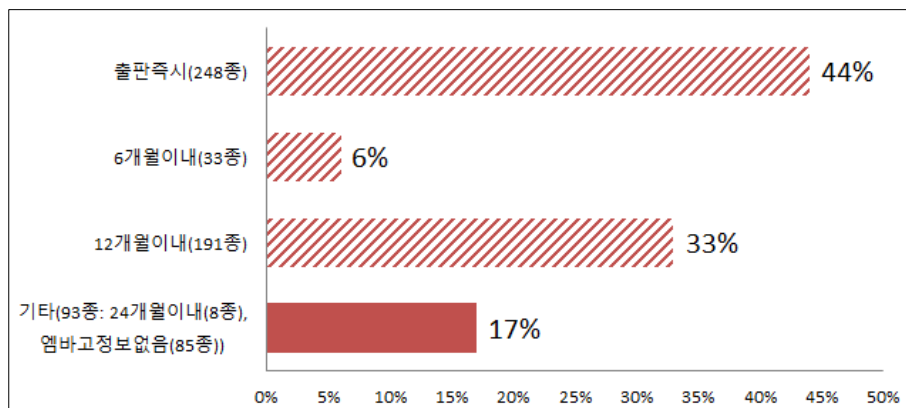
용하였다.¹³⁾ CSV 파일내 구분항목으로 사용된 '엠바고 기간'과 '오픈엑세스 유무'를 분석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오픈엑세스 유무에 오픈엑세스라고 표시된 학술지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술지는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PMC 데이터베이스에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74%(1,611종)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26%(565종)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엠바고 유형과 비율 조사를 위해서 추출된 565종의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엠바고 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엠바고 기간은 출판즉시,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기타(24개월 또는 엠바고 정보 없음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출판즉시 무료접근이 가능한 학술지는 44%(248종), 6개월 이내 무료접근이 가능한 학술지는 6%(33종), 12개월 이내

무료접근이 가능한 학술지는 33%(191종), 기타 17%(93종, 엠바고 기간이 24개월 이내인 8종과 정확한 엠바고 기간 정보가 없는 85종)순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44%의 학술지가 이용자에게 출판즉시 무료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무료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39%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83%의 학술지가 12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에게 무료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MC 데이터베이스가 전 주제 분야가 아닌 생명과학분야의 오픈엑세스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대상 학술지 종수도 565종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출판하고자 할 경우 엠바고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시사점은 제공해 준다.



<그림 5>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엠바고 기간의 유형과 비율(PMC)

13) PMC 데이터베이스 등재 학술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URL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ncbi.nlm.nih.gov/pmc/journals/>

4.2.3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CC 라이선스 유형과 비율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9,912종의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CC 라이선스 유형이 부착되어 있는 3,887종(전체의 39%의 비율)의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학술지에 부착된 CC 라이선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CC-BY 라이선스 유형이 54%(2,083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CC-BY-NC-ND 라이선스 유형이 19%(755종), CC-BY-NC 라이선스 유형이 18%(688종), CC-BY-NC-SA 라이선스 유형이 7%(265종), CC-BY-SA 라이선스 유형과 CC-BY-ND 라이선스 유형이 함께 2%(96종)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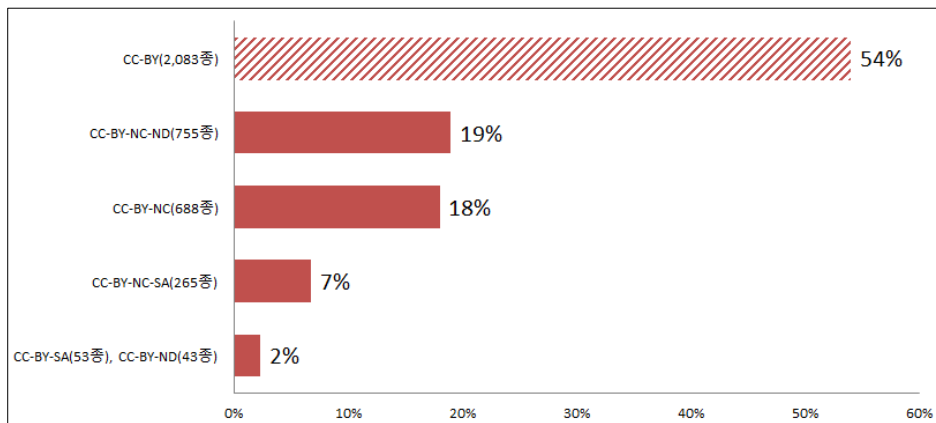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54%의 학술지가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한다는 것은 BOAI 선언에서 정의된 오픈엑세스의 개념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 출판사의 경우 이용자에게 학술지 논문을 가장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CC-BY 라이선스 유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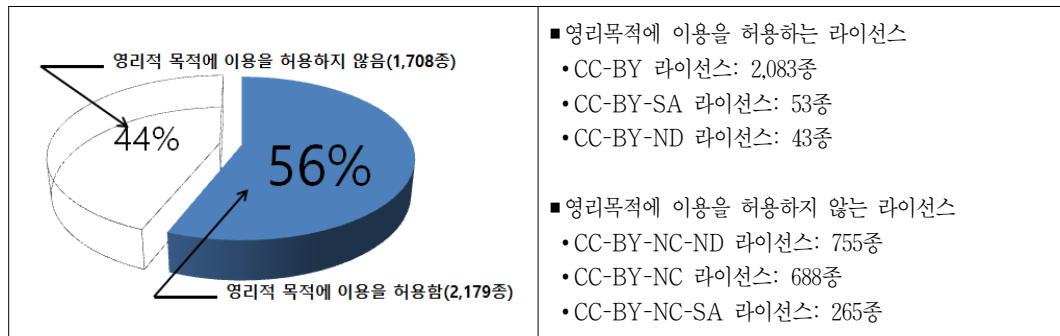
4.2.4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영리목적에 이용허락의 비율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하는 CC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한 학술지의 비율이 전체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56%(2,179종)로 높게 나타났다.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유형은 CC-BY 라이선스(2,083종), CC-BY-SA 라이선스(53종), CC-BY-ND 라이선스(43종)의 세 가지 유형이며 이용자는 각각의 CC 라이선스 유형이 제시한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한 영리목적에 해당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하는 libre 오픈엑세스



<그림 6>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CC 라이선스 유형과 비율(DOAJ)



〈그림 7〉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영리목적에 이용허락의 비율(DOAJ)

스 학술지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제 3의 학술지 서비스기관이 학술지 시장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통해서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접근하여 CC 라이선스 유형의 이용 조건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새로운 방식의 학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투고한 자신의 논문이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기관을 통해서도 폭넓게 확산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출판을 고민하고 있는 출판사의 경우 CC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할 때 이런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사인 PLoS와 BMC가 학술지 출판시점부터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존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인 『정보관리연구』를 오픈엑세스 학술지인 JISTaP(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4.3 조사결과의 요약

4.3.1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높은 비율과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제시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학술지 출판사 중에서 73%의 학술지 출판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나머지 27%의 학술지 출판사가 자신의 저작권 정책상에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내용을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학술지 출판사는 자신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내용에는 셀프 아카이빙 가능 자료버전, 아카이빙 장소, 아카이빙 조건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술지 출판사는 저자에게 학술지 논문의 어떤 버전을, 어떤 장소에, 어떤 조건하에서 셀프 아카이빙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저자가 학술지 논문을 지정된 공개 전자 아카이브에 신속하게 기탁하여 다른 연구자에게 무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3.2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에서 엠바고 기간의 최소화

PMC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44%가 출판즉시, 그리고 39%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무료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83%의 학술지가 12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무료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사는 엠바고 기간을 두지 않거나 최소한의 엠바고 기간을 둬으로써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무료접근의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다.

4.3.3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에서 CC-BY 라이선스 유형의 채택과 영리목적에 이용허락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채택하고 있는 CC 라이선스 유형의 비율을 보면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넘는 54%의 학술지가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한다는 것은 BOAI 선언의 오픈엑세스의 개념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영리목적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CC 라이선스 유형(CC-BY 라이선스, CC-BY-SA 라이선스, CC-BY-ND 라이선스)을 채택하고 있는 학술지의 비율이 전체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중에서 56%(2,179종)로 과반수 이상이 넘었다. 이것은 libre 오픈엑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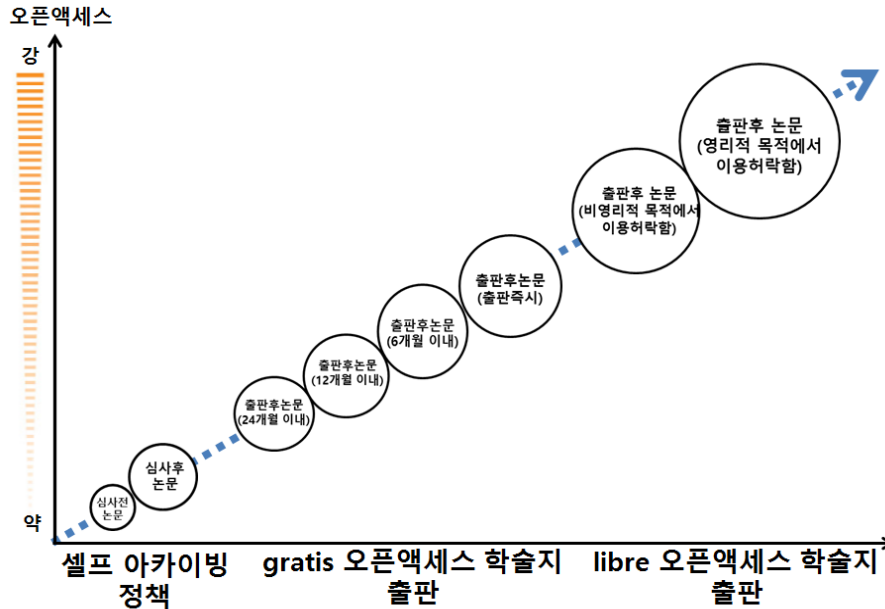
스 학술지를 발간하는 출판사가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대한 무료접근권과 재사용권을 보장하고 학술지 시장에는 다양한 제 3의 학술지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국내 학회의 오픈엑세스 수용 및 추진방식에 대한 제안

5.1 오픈엑세스 추진전략과 오픈엑세스 정도에 대한 이해

국내 학회가 선택 가능한 오픈엑세스 추진전략과 오픈엑세스 정도의 관계를 제시하면 <그림 8>과 같다. X축에는 3가지 오픈엑세스 추진전략을 두고 Y축에는 오픈엑세스 정도를 '약'에서 '강'으로 표시하였다. 버블 자체는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학술지 논문의 버전이며 버블의 크기는 오픈엑세스 정도를 표시하였다.

오픈엑세스 추진전략간의 오픈엑세스 정도를 비교해서 제시하면 셀프 아카이빙 정책보다는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이 오픈엑세스 정도가 높고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보다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이 오픈엑세스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픈엑세스 추진전략 내에서도 세부전략간에 오픈엑세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경우 심사후 논문이 심사전 논문보다 오픈엑세스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의 경우 엠바고 기간이 짧을수록 오픈엑세스 정도가 높고 할 수 있다. libre 오



〈그림 8〉 오픈액세스 추진전략과 오픈액세스 정도의 관계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의 경우 영리목적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픈액세스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5.2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른 오픈액세스 수용과 추진방식 제언

국내 학회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른 오픈액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학회의 학술지 유통방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경희(2011) 연구에서 제시된 ‘학회가 채택하고 있는 학술지의 원문서비스 채널’ 구분방식을 준용하였다.

첫째, 이용자가 상용DB에 비용을 지불하고 학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을

가진 학회의 경우 오픈액세스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용DB에서만 학술지 원문을 제공하는 학회는 구독기반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회는 상용DB업체와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해당 학술지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상용DB업체로부터 저작권료 지급과 함께 학술지 전산화, 학회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¹⁴⁾ 국외의 경우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오픈액세스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BOAI 선언에서도 제시된 오픈액세스 추진전략이며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gratis 오픈액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14) 우지수. 2010.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 216.

추진전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결과에서는 상용DB를 통해 구독기반으로 이용되는 학술지는 오픈엑세스 대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외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모형을 유지하면서 오픈엑세스 추진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용DB를 통해서 학술지를 유통시키고 있는 국내 학회도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상용DB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의 사례와 같이 학회 차원에서 저자에게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용DB가 아닌 홈페이지나 무료DB에 원문을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을 가진 학회의 경우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학술지는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 측면에서 보면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엠바고 기간 없이 출판 즉시 무료로 원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들 학술지는 현재의 gratis 오픈엑세스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학회 차원에서 CC 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 중에서 해당 학술지에 적합한 CC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면 된다. 이 때 DOAJ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경우 가장 개방적인 CC-BY 라이선스 유형과 영리목적의 이

용을 허용하는 CC 라이선스(CC-BY 라이선스, CC-BY-SA 라이선스, CC-BY-ND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용DB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나 무료DB에서도 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술지 유통방식을 가진 학회의 경우 현재의 학술지 유통방식을 유지하고 원문서비스 채널이 학회 홈페이지인 경우 원문서비스 채널을 무료DB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일한 학술지 논문이 무료와 유료로 동시에 유통되는 학술지는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 측면에서 보면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술지는 현재로서는 상용DB업체와의 저작권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홈페이지나 무료DB에서 원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학술지를 홈페이지에서만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학회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료DB로 원문제공 채널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 학회의 학술지 출판여건이 충분히 상용DB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학술지를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 시기에는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앞서도 설명했듯이 가장 개방적인 CC-BY 라이선스 유형과 영리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CC 라이선스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술지 유통방식은 국내 학회의 대내외적 출판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한 오픈엑세스 추진전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출판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8>에서 제시된 오픈엑세스 추진전략과 오픈엑세스 정도는 학회의 학술지 출판여건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이다.

5.3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의 성문화와 대외적 공시

국내 학회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고논문이 어떤 수준에서 오픈엑세스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학술지 논문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국내 학회가 성문화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국내 저자와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명확한 이용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SHERPA/RoMEO 데이터베이스에 학회 차원에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등록함으로써 해외 저자와 이용자에게도 명확한 이용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PMC 데이터베이스와 DOAJ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학술지를 등재함으로써 확고한

오픈엑세스 학술지로서 대외적 인정을 받을 필요도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학회가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오픈엑세스를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BOAI 선언에서 최초로 정의된 오픈엑세스의 개념과 추진전략을 명확히 살펴보고 BOAI 선언 이후 학술지 출판사의 오픈엑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을 조사하였다. 현실에서는 BOAI 선언의 오픈엑세스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학술지 출판사가 실제 오픈엑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접근비용장벽만 제거한 상태에서 서비스하는 유형과 접근비용장벽과 허가장벽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서비스하는 유형이 혼재하고 있었다. Suber(2008)는 전자를 gratis 오픈엑세스라고 명명하고 후자를 libre 오픈엑세스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학술지 출판사가 각자의 출판방식에서 오픈엑세스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학술지 출판사가 채택한 오픈엑세스 유형에 따라서 추진전략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gratis 오픈엑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셀프 아카이빙 정책과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이 추진되었고 libre 오픈엑세스 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CC 라이선스를 채택한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출판되었다.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경우에는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중심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

빙 정책에 대해서 아카이빙 자료 버전, 아카이빙 장소, 아카이빙 조건 등을 명확한 제시해 주고 있었다. 특히 구독기반 학술지 출판사가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경우에는 엠바고 기간(출판즉시,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기타(24개월 이내 등))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었다. 대부분의 gratis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엠바고 기간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bre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경우에는 CC 라이선스 유형 중에서 가장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CC-BY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거나 영리목적에 이용을 허락하는 CC 라이선스(CC-BY 라이선스, CC-BY-SA 라이선스, CC-BY-ND 라이선스) 유형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회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른 오픈엑세스의 수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국내 학회는 오픈엑세스 추진전략간에 오픈엑세스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

에 따라서 적합한 오픈엑세스 유형과 추진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지 유통방식은 국내 학회의 대내외적 출판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엑세스 추진전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출판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성문화하고 저자와 이용자를 위해 학술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HERPA/RoMEO, DOAJ 그리고 PMC 등에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회가 저작권 귀속주체이고 오픈엑세스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국내 학회가 자신의 학술지 유통방식에 따라 오픈엑세스를 수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오픈엑세스 수용 및 추진방식을 실제로 학회에 적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증과정을 통해 국내 학회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오픈엑세스 수용 및 추진모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만, 김보애, 박태식, 이길신 (2009). 오픈 액세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학술지 발행기관별 차이 및 학문분야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31-449.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431>
- 김규환 (2013a). 국내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리 방안 제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31집, 137-154.
- 김규환 (2013b). 국내 학술지 논문의 self-archiving을 위한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 관리시스템 사례

- 연구. 2013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5-112.
- 우지숙 (2010).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정경희 (2010). 오픈액세스 수입원 분석을 통한 국내 학술지의 성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137-154.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3.137>
- 정경희 (2011).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373-391.
- 차미경 외 (2007). 오픈 액세스 기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최재황, 조현양 (2005). 오픈 액세스 운동의 동향과 학술적 이해관계자의 대응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2(3), 307-326.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307>
-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31-463.
-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Read th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 Peter Suber (2003). Open access overview: Focusing on open access to peer-reviewed research articles and their preprints.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legacy.earlham.edu/~peters/fos/overview.htm>
- Peter Suber (2008). Gratis and libre open access. SPARC Open Access Newsletter.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sparc.arl.org/resource/gratis-and-libre-open-access>.
- Peter Suber (2009). Ten challenges for open-access journals. SPARC Open Access Newsletter.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legacy.earlham.edu/~peters/fos/newsletter/10-02-09.htm>.
- Stevan Harnad and Peter Suber (2008). Strong and weak OA. Open Access News. Retrieved 2014, 7. 22. from <http://www.earlham.edu/~peters/fos/2008/04/strong-and-weak-oa.html>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 Mi-Kyeong et al. (2007). A research on development of policy for open access based scholarly communication.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Choi, Jae-Hwang, & Cho, Hyun-Yang (2005). The recent trends of open access movements and the ways to help the cause by academic stakehold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07-326.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307>

- Hong, Jae-Hyun (2008).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for open access and archiving of scholarly journal paper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431-463.
- Joung, Kyoung-Hee (2010). An analysis of income models for open access in Korean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137-154.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3.137>
- Joung, Kyoung-Hee (2011). Characteristics of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Focused on KCI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373-391.
- Kim, Gyuhwan (2013a).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s and licenses of journal articles for improving usage of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ccasional Papers Series*, 31, 137-154.
- Kim, Gyuhwan (2013b). A study on copyrights and archiving policy management system for self archiving of journal articles in Korea. 2013 Proceedings of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95-112.
- Ko, Young-Man, Kim, Bo-Ae, Park, Tae-Sik, & Lee, Kil-Shin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journal publisher and among the academic disciplines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open acc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31-449.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431>
- Woo, Jisuk (2010). A policy study on the open access to research outcomes funded by public institutions. Seoul: KISTI.

